

아시아교회를 위한 정책,
개혁신학이 답하다.



선교신학적 관점

아시아 선교를 위한 이주의 성경적 고찰과 적용



배춘섭 Choon-Sup Bae

총신대학교 Chongshin University
bcs11191@gmail.com

<초록>

본 논문은 아시아에서 급증하는 이주민을 위한 복음전도를 위해 이주에 관한 성경적 고찰과 교회의 총체적 선교사역들을 논의한다. 오늘날 아시아에서 다른 아시아 권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급격한 이주의 이유에는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들이 있으며, 최근 혁신적 과학 문명은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특별히 이주민에 관해 연구할 때 구약성경에서의 게르(גֵּר)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게르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에 수용되어 함께 야웨 신앙을 지닌 자들이다. 신약성경에서 게르는 개종자(προσήλυτος), 이방인(πάροικος), 나그네(γειώρας)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봄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적 관점에서 이주민을

향해 다음과 같은 선교적 자세를 지녀야 한다. 첫째, 교회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이주민의 정체성을 갖고 오직 복음전도에 힘써야 한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주민을 환대하고 총체적 사역들을 감당해야 한다. 끝으로, 교회는 이주민과 현지인 간에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역을 실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저자는 이주민 선교를 통해 이주민을 선교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주민의 역-선교(reverse mission)를 통해 아시아를 비롯해 세계 복음화를 이뤄야 함을 주장한다.

| 주제어 | 아시아, 선교, 이주, 성경, 복음전도

I. 서론

성경은 개인과 집단적 이주에 관한 다양한 내러티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주는 자의적이든, 반자의적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¹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와 사람들의 이주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뜻한다. 2010년에 개최한 로잔 3차의 케이프타운 대회 서약문(The Cape Town Commitment)은 현대 이주민의 이동이 급격히 증가한 현상을 주목하면서,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주권과 선교목적에서 찾으며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민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글로벌 현실 중 하나이다. 2억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출신 국가를 벗어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디아스포라’의 용어는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출생지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데 사용된다. 일부는 영구적으로 이주하지만, 300만 명의 국제 유학생과 학자들 같은 일부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이주한다. 기독교인을 포함해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수많은 자들이 디아스포라 환경에서 살고 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국내에서 난민이 된 자들, 난민 및 망명

¹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해 이주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라; B.T. Arnold, *Genesis: The New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Press, 2009), 59; R.E. Averbeck, “A Literary Day, Inter-Textual, and Contextual Reading of Genesis 1-2,” in *Reading Genesis 1-2: An Evangelical Conversation*, ed. J.D. Charles (Peabody: Hendrickson, 1982), 7-34; E. Medeiros, “God scatters to gather through his people: A missional response to migrant churches,” in *Reformed means missional*, ed. S.T. Logan (NC, Greensboro: Green Growth Press, 2013), 173-188.

신청자, 인종차별 피해자, 종교적 폭력과 박해를 피해 도망한 자들, 가뭄, 홍수, 전쟁 등으로 인한 기근 환자, 농촌 빈곤 피해자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우리는 현대의 이주가 수반할 수 있는 악과 고통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교의 목적** 안에 있다고 확신한다(CTC IIC:5).²

이처럼 역사적으로 인간의 이주는 선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사와 관련된다. 반 타인 뉴엔(van Thanh Ngunyen)은 역사의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주를 단행해 왔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 자체가 낯선 사람들과 이주자들, 피난민들에 관한 이야기로서 그들에 대해 일련의 내러티브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한다.³ 이런 그의 주장은 이주민을 위한 교회의 책임 있는 복음전도 사역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시아 선교를 위한 이주민의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서 아시아의 이주 정세와 요인을 살핀 후 성경에서 이주민으로 쓰인 용어들의 신학적 함의를 연구하고자 한다.

II. 아시아의 이주 정세와 요인⁴

2020년 현재 아시아에는 약 46억 명의 인구가 거주한다. 그 가운데 국제 이민자는 전체 이민자 수(약 2억 8천 백만)의 약 40% 이상(약 1억 1500만 명)에 달하는 아시아 출신이다. 그리고 이민자의 약 절반 이상(6,900만 명)은 “아시아 내의 다른 국가들”에 거주한다. 이는 2015년 기준, 아시아 대륙에 약 6,100만 명의 이주민이 거주한 바를 감안(勘案)한다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 이주민의 인구이동이 1990년에 3,500만 명이었음을 고려할 때 아시아 내

2 “2010 The Cape Town Commitment,” <https://lausanne.org/content/ctc/ctcommitment> (2023년 8월 24일 접속); 특별히 2부 “우리가 봉사하는 세상을 위해: 케이프타운 행동 촉구”(For the world we serve: The Cape Town Call to Action)의 C항 “다른 신앙을 지닌 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Living the love of Christ among people of other faiths)에 나타난 5조 “흩어진 민족들에게 다가가는 사랑”(Love reaches out to scattered peoples)을 참조하라.

3 van T. Ngunyen, “Asia in motion: A biblical reflection on migration,” *Asian Christian Review* 4(2) (2010): 19.

4 국제 이민자의 수는 1970년에 약 8,400만 명에서 2020년에는 무려 2억 8100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주민의 수와 비율 변화는 항상 일정치가 않다. 이유는 국제 정세상 세계적 인구이동을 발생시킨 요인들이 비정형적이기 때문이다. 즉, 전 세계의 이주비율은 변칙적이고 비고정적이었는데, 이주를 일으킨 국제 정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지역적 패턴을 뚜렷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이주에 관한 장기간 축적된 자료들을 참조하자면 인간의 인구이동은 경제적, 지리적, 정치적 및 기타 요인 등으로 인해 이주의 패턴이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적 이주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인간의 열망이 기본적 욕구로서 보편성을 띄기 때문이다; WDR(World Development Report), *Migrants, Refugees, Societies* (Washington: The World Bank, 2023), 49.

에서의 이주민의 이동은 해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증가했음을 방증한다.⁵ 실제 지난 30년 동안 아시아 내에서는 이주민의 지리적 이동의 증가 수치가 현저히 높았는데, 이런 아시아 이주 정세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첫째, 자연재해나 전쟁이 치러지는 분쟁지역 내에서 박해를 피해 안정된 곳으로 이동하는 사회-정치적 요인이다. 전쟁을 피해 모국을 떠난 시리아 아랍 공화국의 난민은 주로 튀르키예(360만 명 이상), 레바논(약 90만 명), 요르단(약 70만 명)에 수용되었다. 그리고 26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은 주로 파키스탄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등에 수용되었다. 또한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과 박해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난민 인구를 발생시켰다. 그 외에도 자연재해는 난민과 이주민의 이동을 가속화 했다. 2020년 중국은 무려 500만 건의 재난으로 인해 새로운 이주민을 낳았다. 필리핀에서도 약 400만 건의 재난 사건으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방글라데시(400만 명 이상), 인도(약 400만 명), 베트남(약 100만 명)의 등지에서 몬순이나 산사태, 강렬한 사이클론으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의 이주민을 양산했다.⁶ 최근에는(2023년 2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이주민 중 전체의 76%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약 800만 명)의 난민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발생했다.⁷

둘째, 긍정적 발전의 기회로서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이주민의 국제적 이동은 개인 삶의 성취욕구, 가계의 소득향상, 지역사회 기여 등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한 이유와 무관할 수 없다. 역사적 관점에서, 인류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언제나 삶의 자리를 이동했기 때문이다. 마세이(Massey)는 “인간은 대부분 다른 동물들과 달리 많은 새처럼 철새 같은 존재이다. 실제 이주는 인류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거의 모든 역사적 시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양한 동기에 의해 인간은 방황하지만 대부분 물질적 개념을 지닌 남녀 사이에서 지리적 이동의 일관적 경향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⁸ 그의 언급대로, 실제 국제 이민은 항상 광범위하게 경제 개념과 얽힌 상태로

5 2020년 현재 아시아에서 북미나 유럽으로의 이주는 약 4,600만 명, 아시아에서 북미로의 이주는 1,750만 명, 그리고 유럽으로의 이주는 2,300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의 이주가 6,900만 명에 달하는 수치는 아시아가 이주의 시대를 맞았음을 의미한다; WDR, *Migrants, Refugees*, 73-74.

6 McAuliffe, M., & A. Triandafyllidou (eds.), *World Migration Report 2022*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22), 79.

7 WDR, *Migrants, Refugees*, 73-74; 참고로 인간의 과도한 소비활동은 자원 고갈, 생물의 다양성 붕괴, 과잉 생산 등으로 인해 지속 불가능한 경제체제를 가져왔다. 또한 과학 문명주의와 인간의 이기적 우월주의는 지구의 자연 생태계를 과도히 사용하게 함으로써 부정적 결과를 낳았는데, 이는 이상기후와 더불어 수천 종에 달하는 생물의 대량 멸종사태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이상기후는 지구촌에 자연재해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곧 전 세계의 생태환경이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Message from the Executive Director,” <https://www.unep.org/annualreport/2022/> (2023년 8월 30일 접속).

8 Massey, D.S., Arango, J., Hugo, G., Kouaouci, A., Pellegrino, A., & J.E. Taylor, *Worlds in Mot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e End of the Millennium*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5), 2.

오랫동안 여러 국가에 의해 자국 국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정책이 추구하고 수립되었다. 왜냐하면 이민은 국제 무역, 외교 및 평화의 발전을 지원하고 문화적 유대를 형성케 함으로써 국민의 윤택한 삶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이주 노동자들을 수용하는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국가 정책적 요인이다. 오늘날 대부분 고소득 국가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따라 상당한 노동자의 수요가 요구된다.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많은 수의 실업자와 고용이 불안한 청년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중 세계의 노동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은 국가 간 노동자의 수요와 공급이 잠재적으로 불일치하기에 국가 변영에 있어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음을 뜻한다.⁹ 물론 고소득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높은 보수, 출생주의 정책, 연금 개혁 등의 방안을 수립하지만, 여전히 노동력의 공급은 요원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2022년 출생주의와 관련해 한국은 부모 세대만큼의 세대를 유지하려면 0.89의 출생률을 4.7로 인상해야 한다. 또한 연금 개혁과 관련해 OECD 국가에서 노인대비 노동자 연령(20-64세) 비율은 2022년 현재 2.9이지만, 2050년에는 1.85로 떨어질 가능성에 놓여있다. 만약 그렇다면, 2050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노동력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노동자의 은퇴 연령을 무려 7년이나 연장해야 한다.¹⁰ 이런 이유로,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국제 이주민을 환영하고 있다.

끝으로, 최근 급격히 인간의 국제 이주를 가속화 하는 요인은 첨단 과학문명의 혁신적 디지털 기술이다. 2005년 이후 소위 “4차 산업 혁명”을 초래한 기술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와 정치, 경제 분야에 있어 근본적인 시스템 작동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소통의 증가와 인공지능(AI)의 활용, 첨단 기술의 항공기와 고속철 등의 교통수단은 전 세계 사람들의 지리적 이동을 그리 어렵지 않게 만들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이주자가 학대와 착취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도록 함에 따라 불법적인 밀수업자나 인신매매범을 걸러내거나 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했다.¹² 게다가 이민자들은 인공지능을 기반한 온라인 챗봇을 통해 각국의 복잡한 이주정책과 이민법을 간편히 탐색하여 숙지(熟知)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은행을

9 1960년 이후 세계의 이주민 인구는 2.7%에서 3.5%로 변동했는데,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율은 일정하지 않았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58%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지만, 중간 소득계층 국가는 평균 17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놀랍게도 저소득 국가에서는 무려 383%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율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주 변화는 고소득 국가의 노동력 부족과 이주민 출신 국가의 저소득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WDR, *Migrants, Refugees*, 45.

10 WDR, *Migrants, Refugees*, 75.

11 McAuliffe & Triandafyllidou, *World Migration Report 2022*, 5.

12 McAuliffe & Triandafyllidou, *World Migration Report 2022*, 6.

통해 이주민들은 국제 송금과 디지털 계좌를 손쉽게 활용함으로써, 국제적인 지리적 이동에 대한 두려움을 부지불식간에 극복하게 되었다.¹³

이처럼 전 세계에서 이주민의 이동은 아시아 내에서 증가 수치가 가장 높다. 그리고 향후 아시아에서의 이주민 이동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고소득 국가의 노동력 부족은 저소득 국가의 이주 노동자 수요를 더욱 필요로 하기에, 아시아에서 이주 노동자의 국제적 이동은 결과적으로 더욱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민 선교는 시대가 요청하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기에 이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I. 성경에 나타난 이주민

1. 구약성경에서의 이주민

구약성경에서 이주민을 나타내는 대표적 용어는 주로 네 가지이다. 그것은 “게르(*ger*), 자르(*zar*), 노크리(*nokhri*), 토샤브(*toshabh*)” 등이다. 이 중에서 언약과 관련해 선교적 범주에 해당하는 독특한 용어는 게르이다. 이유는 게르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면서 야웨 신앙을 지님으로써 언약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통합된 존재로서 이해되기 때문이다.¹⁴ 아와브디(*Awabdy*)는 게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나는 게르(גר)가 야웨와 언약적 관계 안에서 정의된다는 점이다. 즉, 게르는 야웨와 언약관계로 들어오기 전 아마도 노크리(נכרי)로 불렸거나, 토샤브(*toshabh*) 혹은 자르(זר)로 불렸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게르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의미 있게 통합된 존재인가?… 어떤 이는 게르가 “어떤 선교적 비전을 지녔는가?”라는 질문을 할 것이다. 게르와 포로, 노예가 이스라엘에 통합되는 것은 선교적 관점에서 동화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¹⁵

13 “이주민 디지털 격차, 소득·계층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989> (2023년 8월 16일 접속).

14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C.J.H. Wright,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6), 501-05.

15 M.A. Awabdy, “He Loves the Immigrant: Deuteronomy's Theological and Social Vision for the II,” (Ph.D. diss, Asbury Theological Seminary, 2012), 10; 반 호우튼(van Houten)은 ‘게르’를 이방인으로 간주하고, ‘토샤브’는 단기 체류자(temporary inhabitant)로 이해한다. 반면 켈러만(Kellermann)은 게르가 원주민(*ezrach*)과 외국인(*nokhri*) 사이에 낀 사회적 신분으로서

이런 주장에 따르면, 게르는 단순히 노예, 포로, 외국인, 이방인 등과 같은 부류들과는 구별된 자로서 선교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율법에 나타난 게르는 언약적 특성으로써 종교적 특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인도주의적 관심과 관련된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하경택은 그의 논문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 <노크리>와 <게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에서 노크리와 게르의 차이점을 세 차원에서 기술한다. 첫째, 제도적 차원이다. 노크리는 이스라엘에 정착할 의도가 없이 단기적으로 거주하지만, 게르는 영구적으로 이스라엘에 정착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이방이다. 둘째, 종교적 차원이다. 노크리는 야웨의 종교로 개종을 원치 않지만, 게르는 야웨를 믿는 신앙으로 개종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방인이다. 셋째, 사회적 차원이다. 노크리는 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아니지만, 게르는 사회적 약자로서 율법과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는 신분이다.¹⁶ 또한 패트릭 밀러(Patrick Miller)는 구약성경에서 게르(גר), 자르(גר), 노크리(נוכרי) 등을 언급하면서 이 용어들의 의미가 “낮선 사람, 외부인 또는 외국인을 언급하는 기본 어휘들”이라고 설명한다.¹⁷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이들 용어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게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보호의 대상이었지만, ‘자르’와 ‘노크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르와 노크리는 상업적 활동이 가능한 자들로서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다분히 적대적인 대상으로 여겨졌다고 그는 말한다.¹⁸ 그렇기 때문에, 밀러는 구약성경의 그 어떤 책에서도 자르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수용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한다.¹⁹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주민의 현대적 의미는 게르보다는 자르나 노크리에 더 근접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관점에서 게르에 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게르’는 구약성경과 율법에서 이주민의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신학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²⁰ 이주

현지인의 환대에 의존하는 자들이었다고 언급한다. 왜냐하면 게르는 원주민에 비해 여러 제도적 보호와 우선권이 뒤쳐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게르는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리 야웨 신앙(Yahweh faith)을 준수하는 개종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참조) C. van Houten, *The Alien in Israelite Law*, 이영미 역,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구약법에 나타난 이방인』(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8), 153-57; D. Kellermann, “מ” *TDOT* II, (1999): 439-49.

16 하경택,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 <노크리>와 <게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39권(2010): 67; 더 나아가, 하경택은 노크리의 용례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칭할 때이다(잠 27:2; 전 6:2). 둘째, 어떤 가족이나 씨족 집단에 속하지 않는 자를 지칭할 때이다(창 31:15; 시 69:8). 끝으로, 외국인으로서 먼 외국에서 온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자를 지칭할 때이다(왕상 8:41; 신 17:15) 참조) 하경택,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 67-69.

17 P.D. Miller (ed.), “Israel as Host to Strangers,” in *Israelite Religion and Biblical Theolog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549.

18 Miller, “Israel as Host to Strangers,” 551.

19 Miller, “Israel as Host to Strangers,” 549-50.

20 참고로 율법에 나타난 ‘게림’(gerim)은 주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두루 걸쳐 등장한다. 게림에 대한 율법의 사회학적 특징

민 ‘게르’에 관한 모세율법의 규정은 주로 그들의 신변 보호와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는 게르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으로 수용된 자들이기에 그들을 이스라엘과 차별 없이 대하고 배려해야 함을 뜻한다. 무엇보다 율법은 신성한 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다. 놀랍게도, 이방인에 대한 보호는 모든 고대 법전들 가운데서 모세율법이 유일하다. 반 베이크-보스(van Wijk-Bos)는 ‘낮선 자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토라(Torah)의 핵심적 정신이라고 주장한다.²¹ 모세율법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특징은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에는 없지만 게림에게 유리한 많은 법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세율법은 여러 조항에서 사회적 지위가 취약한 게림을 보호한다. 율법은 게림을 학대나 불공정함으로부터 보호하고(출 22:21; 신 24:17), 수확기에 이삭을 줍는 권리를 제공하며(신 24:19-21), 3년마다 거둔 특별한 십일조의 일부를 그들에게 허용한다(신 14:28-29; 26:12-13). 뿐만 아니라, 법적 소송에서 게림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허락하고(신 1:16-17), 그들이 안식일에 휴식하고(출 20:10; 23:12; 신 5:14), 속죄일(레 16:29-30)과 유월절(출 12:48-49), 칠칠절(신 16:11), 초막절(신 16:14) 등의 절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처럼 모세율법은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주민인 게림을 지원하고 돌볼 것을 요구하는데, 법적 사건의 공정성을 위해 사법적 문제와 안식일에 안식하고 종교적 절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종교적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그들을 보호한다.²²

하지만 게림(גֵּר, 게르 복수형)은 주최국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만 했다. 그들은 정기적인 율법 낭독(신 31:10-13)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그들은 현지 언어인 히브리어를 말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더욱이 게림은 성적인 금기를 피해야 했으며(레 18:26),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율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레 24:22). 또한 그들은 정결법(민 19:10)과 기타 음식의 제한(출 12:19; 레 17:10-15)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금지했다(레 20장; 민 15:30-31). 만약 게림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서 이탈할 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신앙적 정결을 위해 그들과의 교류를 단절해야만 했다.²³ 또한 게림은 사회적으로 “거주 외국인, 이방인, 영구 체류자” 등으로 번역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구약성경

은 언약적 측면에서 대개 두 가지가 눈에 띄게 주목된다. 하나는 ‘보호받는 이방인 거주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보호받는 종속된 이방인이다. 아마도 게림은 다른 지방에서 찾아온 자들로서 자기 친척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낮선 땅에 살면서 부족이나 강력한 족장의 보호를 받았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속되지 않는 타자성’이다. 게림은 이스라엘과 부분적으로 통합된 거주자였다. 그 결과 그들은 제한적 타자성을 지녔기 때문에 토지소유권, 결혼, 관할권, 예배, 전쟁 참여의 권리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었다; Awabdy, “He Loves the Immigrant,” 6; 하경택,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 73-75.

21 Johanna W.H. van Wijk-Bos, *Making Wise the Simple: The Torah in Christian Faith and Practice*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5), 29-33.

22 M. Daniel Carroll, *Christians at the Border: Immigration the Church, and the Bible* (Grand Rapids, MI: Baker, 2008) 91-112.

23 SVD. van Thanh Nguyen, “Asia in Motion: A Biblical Reflection on Migration,” *Asian Christian Review* 4(2) (2010): 24.

에서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게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난한 자들(창 12:10; 20:1; 창 47:4; 룻 1:1; 왕상 17:20; 왕하 8:1), 정치적 이유로 피신해 난민과 포로가 된 자들(신 14:29; 16:11; 24:17; 사 16:4; 삼하 4:3; 렘 35:7; 44:14; 스 1:2-4),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도망친 자들(출 2:22; 삼하 13:38; 삿 17:7)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게르는 이스라엘 조상에게도 개념이 적용되었는데,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들, 롯과 에서 모두를 게르로 표현했다.²⁴ 이런 용례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게르임을 뜻하며, 곧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이주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함의한다.

2. 신약성경에서의 이주민

구약성경의 게르는 신약성경에 와서 신학적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고 확장된다. 프로셀뤼토스(προσήλυτος)를 제외한 구약성경 안에서 게르(גר)나 게림(גרמ)의 개념에 상응하는 신약성경의 단어는 파로이코스(παρούκος)이다. 이 용어는 “낯선 자, 거주자, 체류나 나그네”로 번역이 가능하다.²⁵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든 πάροικος로 묘사한다.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가 가이사 아우구스토(Caesar Augustus) 황제가 부과한 인구조사에 등록하기 위해 나사렛에서 선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던 시기였다(눅 2:1-7).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태어난 순간부터 고향으로 가던 길에서 이주민의 삶을 시작해야 했다고 그는 보고한다.

특히 마태는 이주민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더 극적으로 생생히 전달한다. 마태가 전하는 이주민으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으로서 예수는 다말, 라합, 롯과 같은 외국인 여성을 수반하는 족보에 등장한다. 둘째, 예수의 출생 직후 요셉과 마리아는 전제적 통치자인 헤롯의 위협 앞에서 유아의 대학살을 피해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이주해야 했다(마 2:13-23). 반면 무고한

24 이처럼 게림(גרמ)은 온전치 못한 자들로서 자주 도망치는 사람들이었다. 때때로 그들은 정착하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야곱은 사기꾼이자 책략가였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셔서 언약의 줄기 한 편에 세우셨다. 이것은 게림이 연약하고 심지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작정에 따라 그들을 택하심으로써 게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게림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로서 신성하게 빚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를 받는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받음을 의미한다. 더 자세한 성경구절에 관한 기록은 다음을 참조하라: Awabdy, “He Loves the Immigrant,” 1-10; 고광석, “다문화 선교를 위한 ‘이주민’의 성경적 이해와 선교적 적용,” 『개혁논총』 47권 (2018): 112-125.

25 K.L. Schmidt, M.A. Schmidt & R. Meyer, “παρούκος,” TDNT, V (1978): 841-53; 참고로 칠십인경(LXX)에서 게르(גר)는 ‘προσήλυτος’(프로셀뤼토스: 개종자)로 63번, ‘παρούκος’(파로이코스: 이방인)로 6번, ‘γειώρας’(게이오라스: 나그네)로 한 번 번역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게르가 향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성취의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의미한다. van Houten,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구약법에 나타난 이방인』, 153-57.

아이의 생명을 끝내려 했던 헤롯은 때 이른 죽음을 맞게 된다(마 2:19). 그래서 헤롯의 사망 소식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귀향한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 영토의 후계자인 아켈라오(Archelaus)가 그의 아버지처럼 매우 잔인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마 2:22).²⁶ 이 때문에 그들은 새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아기 예수와 함께 북쪽의 나사렛(Nazareth)으로 이주한다. 흥미롭게도, 마태는 신학적 의도로 예수님을 난민이자 이민자로 설명한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 다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했던 역사적 경험을 독자에게 상기시킨다. 예를 들어, 마태는 호세아 11장 1절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린다(마 2:15).²⁷ 이렇듯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이주민의 삶을 사셨고, 이후에도 고향에서 지주자로서 실향민으로 사셨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실향민으로서 예수님의 삶이 이주 생활의 끝은 아니었다. 예수님의 성인 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종종 이방인이자 방랑자, 혹은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예수님은 가족과 소유물을 남겨두고, 제자들에게 똑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막 10:28-31). 심지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주하시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다(마 8:20; 눅 9:58). 실제 예수님의 생애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으로 묘사된다(눅 9:51-62).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로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 땅에서 이주민으로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주님이 *πάροικος*(나그네)이셨음을 증거한다.²⁸

주변인과 사회적 약자를 찾아오시는 이주민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에서 더욱 발전된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으로 제시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를 찾

26 아켈라오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통치하는 행정장관(ethnarch)이 되었는데, 그는 잔혹성은 대단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사절단을 보내 그가 3,000명을 학살했다는 호소한 바 있다; G.R. Osborne,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Matthew*, 김석근 역, 『강해로 푸는 마태복음』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15), 111.

27 마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험과 예수님이 애굽에서 거주하신 사실을 예표론적 관점에서 다룬다. 이는 직접적인 메시아 예언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대표하고, 그들의 경험을 완성하시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브라운(Brown)은 호세아 구절의 인용을 가리켜, “예수님의 귀환은 애굽에서 나온 사실보다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것”과 “출애굽의 언급이 마 2:17-18의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R.E. Brown, *The Birth of the Messiah: A Commentary on the Infancy Narratives in the Gospels of Matthew and Luke*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99), 220;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주 사건이 이스라엘의 이주에 대한 성취를 상기시키며 예표론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을 참조하라. D.A. Carson, *Expositor's Bible Commentary: Matthew* (Grand Rapids: Zandervan, 2010), 91-92; J. Nolland,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W.B. Eerdmans, 2005), 123.

28 E.E. Ellis, *New Century Bible: The Gospel of Luke* (Grand Rapids: Eerdmans, 1974), 152.

아온 로고스(Logos)이신 ‘신성한 말씀’이다(요 1:14).²⁹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받아들이지도 않았다(1:10-11).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집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셨다(18:36).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오셨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이다(16:28).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변인이자 πάροικος로서 삶을 살아가셨다. 주님은 종종 도움이 필요한 자들, 즉 여성,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어울리셨다. 심지어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안식일 규정과 사회 관습마저도 깨뜨리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주민의 삶을 직접 실천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주변인들에 대한 환대가 당연함을 삶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주님의 모범적 삶은 구약성경의 율법이 제시하는 게르를 향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태도와 직결된다.³⁰

신약성경의 서신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주민으로 소개한다. 먼저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주론적, 사회적 주제를 이주민과 연결해 설명한다. 빌립보서는 하나님 백성인 교회를 ‘이방인 이주민’으로 그 개념을 확장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ἡμῶν γὰρ τὸ πολίτευμα ἐν οὐρανοῖς ὑπάρχει, ἐξ οὗ καὶ σωτήρα ἀπεκδεχόμεθα κύριον Ἰησοῦν Χριστόν)(빌 3:20)라고 전한다. 모이세스 실바(Moisés Silva)는 폴리티우마(πολίτευμα)가 “시민권, 거주지, 고국, 국가” 등으로 번역되는데, 어떻게 번역되든 상관없이 “하늘나라 시민다운 행동 이념이 바울 사상의 핵심으로 추론되어야 한다”로 주장한다.³¹ 이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시민권’(πολίτευμ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시에 속한 시민권자임을 확신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특권을 소유하며, 모든 권리와 특권을 향유하는 종말론적 소망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³² 그렇게 함으로써,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믿음의 인내로 이겨내도록 격려한다. 바울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빌 2:15)라고 전한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게르이기에 세상의 어

29 A.J. Köstenberger, *A Theology of John's Gospel and Letters*, 전광규 역, 『요한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205-207.
 30 특별히 쾨스텐베르거(Köstenberger)는 요한복음 안에서 “새 창조-새 출애굽-성취와 대치-회복”이라는 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창조-출애굽-유대절기와 제도-바벨론 포로”라는 구속사와 관련해 연약적 관점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이주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해한 것이다; Köstenberger, *A Theology of John's Gospel and Letters*, 전광규 역, 449-450.
 31 Moisés Silva, *Philippians*, 최갑중 역, 『BECNT 빌립보서』 (서울: 부흥과개혁사, 2020), 249.
 32 M.J. Keown, *Evangelical Exegetical Commentary: Philippians 2:19-4:23* (Bellingham: Lexham Press, 2017), 266.

편 고난 중에서도 흠 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권고한 것이다.

둘째, 히브리서는 거주 외국인(παρεπίδημος)으로서 이스라엘 족장들이 경험한 바를 증거한다. 히브리서 11장 13b절은 창세기의 족장들을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ξένοι καὶ παρεπίδημοὶ εἰσὶν ἐπὶ τῆς γῆς)로 비유한다. 그리고 11장 16절에서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기록한다.³³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집트, 소돔, 그랄, 블레셋 땅에서뿐만 아니라, 유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게르’로 불렸음을 뜻한다(히 11:9).³⁴ 이스라엘 족장들은 거주지의 원주민들에게 자신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정치적, 법적인 게르(ἄνη)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궁극적으로 돌아갈 고향을 찾는 종말론적이지도 우주론적이지도 게르이기도 했다. 이런 히브리서의 증거는 본향으로 돌아갈 종말론적 신앙과 함께, 하나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게르로서 이 땅에서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하며 교회를 격려한다.³⁵ 다시 말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이 이방인과 같은 게르임을 소개하고,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족장들과 포로기 유배 등의 경험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종말론적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다독인다.

끝으로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이 불안정한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παροίκους καὶ παρεπίδημους)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린다(벧전 2:11). 베드로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포로인 ‘흩어진 나그네’(παρεπίδημοις διασποράς)에게 보낸 편지이다(벧전 1:1).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고난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들은 열악한 사회적 조건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만 했다.³⁶ 드라이든(Dryden)은 나그네를 이방인이자 외국인으로 이해했는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기풍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로 살아가기 때문이었다.³⁷ 또한 램지 마이클스(J.R. Michaels)는 베드로가 παρεπίδημος 용어를 사용한 이유를 기독교인과 유대인과의 유비를 좀 더 천착할 의도였지, 실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

33 그룬트만(Grundmann)은 ‘παρεπίδημος’를 이 세상에서 자기의 나라가 없는 자들로서 단지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 사용된 용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παρεπίδημος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용어를 종말론적 신앙의 의미를 담아 우화적으로 표현했다(히 11:13): W. Grundmann, “παρεπίδημος,” TDNT, II (1964): 64-65.

34 W.L. Lane, *Word Biblical Commentary: Hebrews 9-13* (Grand Rapids: Zandervan, 1991), 350.

35 Lane, *Word Biblical Commentary: Hebrews 9-13*, 350-52.

36 J.H. Elliott, *1 Peter: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322.

37 J. de Waal Dryden, *Theology and Ethics in 1 Peter: Paraenetic Strategies for Christian Character Formation* (Tübingen: Mohr Siebeck, 2006), 128.

위를 로마법으로 규정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가정한다.³⁸ 그는 베드로가 “택하심을 입은 백성”, 즉 기독교인에게 인사말(1:1-2)을 전한 다음 대단락(1:1-12)과 결론 부분(2:1-10)에서 수미상관법(inclusio)이라는 문학형식을 사용했음에 주목한다. 즉,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나그네(παρεπιδήμιος)임을 베드로가 수사학적으로 논증했다는 것이다.³⁹ 따라서 이 같은 논의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모세율법의 정신에 따라 이주민을 대하고, 스스로를 ‘게르’(ger)이자 ‘파로이코스’(παροικος) 혹은 ‘파레피데모스’(παρεπίδημος)와 같은 이주민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IV. 로잔대회와 교회의 선교사역 적용

1. 로잔대회에서의 이주(migration)

2004년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 로잔위원회(the Lausanne Committee)는 현재의 세계 복음화 상황, 장애요소 및 새로운 아이디어, 미전도 종족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선교 전략 등을 탐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 회의를 통해 “디아스포라와 유학생: 옆집에 사는 새로운 사람들”(Diasporas and International Students: The New People Next Door)이라는 제목의 아티클을 작성하는 소그룹이 탄생했다. 이 소논문에서는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대규모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국이 아닌 지역에서 장단기적으로 정착하는 현상을 논의했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류의 역사는 이주민으로 가득 찬 시대였다. 둘째, 성경의 구약과 신약성경은 이주민에 관해 사건과 은유 그리고 내러티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셋째, 20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구촌에는 전례 없는 대규모의 이주가 발생했다.⁴⁰ 이런 논의는 오늘날 세계가 “이주의 시대”를 맞이했기에 교회는 이에 따른 선교적 대응, 즉 이주민을 향한 복음전도와 선교사역의 당위성을 뜻한다.

이주민 선교사역의 정의를 도출하기 위한 2009년 로잔 회의(Consultations) 이후, 2010년 남아프

38 J.R. Michaels, *Word Biblical Commentary: 1 Peter*, 박문재 역, 『WBC 베드로전서』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6), 288.

39 J.R. Michaels, *Word Biblical Commentary: 1 Peter*, 박문재 역, 46.

40 Tom Houston, Robin Thomson, Ram Gidoomal, & Leiton Chinn, “The New People Next Door,” in *Lausanne Occasional Papers(LOP) no. 55: A New Vision, a New Heart, a Renewed Call*, ed. David Claydon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5), 75-131; 특별히 로잔대회(Lausanne Movement)와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배춘섭, “로잔운동의 우선주의와 총체주의 간 선교신학적 논의,” 『한국개혁신학』 76권 (2022): 171-205; 이은선, “제11차 WCC 총회 주제 분석과 개혁주의 시각에서의 평가,” 『한국개혁신학』 77권 (2023): 98-137; 이은선, “6.25 전쟁과 WCC와 한국교회,” 『한국개혁신학』 58권 (2018): 213-53.

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세계복음화 로잔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이주민 선교는 주된 의제였고, 로잔대회의 하위 그룹 중 하나인 이주민 부서를 섬겼던 사디리 티라(Sadiri Tira)는 “흩어져 모이다: 이주민의 세계적 동향을 수용한다”(Scattered to Gather: Embracing the Global Trends of Diaspora)라는 소논문을 작성했다. 이 자료는 이주민에 대한 정의와 디아스포라 선교의 유형 그리고 세부 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⁴¹ 이처럼 로잔대회와 임원 회의에서 제작된 논문들은 이주와 현 인구이동의 성장 추세, 그리고 오늘날 새로운 이주문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선교 방법론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따라서 이런 논의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구원의 수단으로 이주민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연구를 통해 그 중요성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성경신학적 접근은 해석학적 측면에서 역순의 오류를 지닌다. 왜냐하면 올바른 성경 해석은 주석(Exegesis) 후에 해석(Hermeneutics)과 적용(Implication)의 순서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논문은 주로 이주의 필요성을 우선하여 인식하고, 그에 따른 이주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방법론을 생성해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역순의 연구방법론, 즉 이주신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적용을 미리 염두하고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한 방법론은 성경 해석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해석을 얻기 위해 해석학적 오류를 범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잔 3차 케이프타운 선교대회 이후 이주민 선교에 관한 논의는 상당한 진보를 나타냈다. 특히 이주민 선교의 적용을 위한 세부 논의가 급속히 증가했는데, 그 중 페인(J.D. Payne)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이주 패턴과 난민의 영향이 복음전도의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심히 연구했다. 페인은 자기의 논문, “이웃으로서의 이방인들”(Strangers Next Door: Immigration, Migration, and Mission)에서 전 세계의 이주민 패턴을 철저히 조사했는데, 여기서 그는 세계 인구가 역사적으로 본 적 없는 빠른 지수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주 현상을 성경과 지난 5세기 역사 동안의 이주 패턴을 논의한 이후에 유학생과 난민에 관한 이주를 상세히 다룬다. 그는 오늘날 활발한 인구이동은 세계정세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기독교에도 상당한 변화를 불러왔다고 언급한다. 달리 말해, 페인은 미전도 국가의 급격한 인구이동이 어려운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운 구원 사역의 일환으로 여긴다. 이에 더해, 그는 이주민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이슬람의 급격한 성장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고, 유럽에서 성장이 정체된 지역 교회들을 다시 부흥케 하는 선교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⁴² 비슷하게, 크리

41 S. Tira, *Scattered to Gather: Embracing the Global Trends of Diaspora* (Manila: Lifechange Publishing Inc., 2010), 14-39.

42 J.D. Payne, *Strangers Next Door: Immigration, Migration, and Mission* (Downers Grove, IL: IVP, 2012), 155.

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도 구약성경이 난민 상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대해 연구한다. 그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으며, 인류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은 창조적인 하나님 작품의 결과이기에, 교회는 세속 정부에 대해 예언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결론 짓는다.⁴³

2. 교회의 선교적 사역

아시아 내에서 수많은 이주민의 이동은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기에, 오늘날 교회는 효율적인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국내의 이주민을 사역을 위한 선교단체와 지역 교회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단적 차원에서 이주민 선교를 위한 협의회와 기관들도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예를들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은 1997년 9월 23-26일에 개최한 82회 총회에서 당시 20만 외국인 근로자들을 복음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총회국내외국인선교협의회”⁴⁴를 조직한 바 있다. 이후 총회세계선교회(GMS)는 “국내다민족사역연합체”(KMMC·Korea Multi-ethnic Ministry Community)를 발족하여 국내 이주민 사역자, 다민족 사역에 동참하는 선교사와 목회자, 그리고 다수의 선교단체와 기관들을 통해 다민족 복음화를 도모했다.⁴⁵ 그리고 최근 GMS이주민선교연합회는 2023년 5월 1-3일까지 총회와 총회세계선교회 주최에 힘입어 “지역교회 이주민 선교화 다문화 목회”라는 주제로 선교포럼을 주관하여 개최했다.⁴⁶ 이런 총회(합동) 차원에서의 움직임은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역을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로 간주된다.

2.1. 복음전도 사역

구약성경 율법에 나타난 게르와 신약성경의 ‘파로이코스’(παροιικος)나 ‘파레피데모스’(παρεπίδημος)의 이해를 통해 교회는 아시아의 이주민 선교를 위해 제일 우선적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에 충실해야 한다(마 28:19-20; 행 1:8). 성경에서 인류의 이주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해석

43 C.J.H. Wright,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6), 289-323.

44 노충현, 「무관심 속 꾸준한 협력사역... 총회외국인선교협의회 3년」, 기독교신문, 1999. 12. 22.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51> (2023년 8월 25일 접속).

45 이지희, 「2030년까지 200개국 2,000명 목회자·자비량 이주민 사역자 파송」, 선교신문, 2020. 2. 5. <https://missionnews.co.kr/news/581829#:~:text=GMS> (2023년 8월 25일 접속).

46 노형구, 「GMS 이주민 선교포럼」, 기독교일보, 2023. 4. 27.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24648#share> (2023년 8월 25일 접속).

되고 계르와 상응하는 용어들이 야웨 신앙 즉,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된다면 교회는 복음전도의 사역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선교적 차원에서, 하도균은 “교회는 다문화 안으로 들어온 모든 구성원들이 동질감을 가지고 함께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으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⁴⁷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복음전도(evangelism) 사역을 강조한다. 그는 다문화 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교육적, 인도적, 신앙교제, 그리고 선교적 차원”으로 이해하는데, 교회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을 주도하고 다문화 가족을 위해 돌봄과 환대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가 다문화권의 다양한 인종들을 공동체의 동반자로 수용함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동질감을 지닌 연합공동체가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서 함께 해야 한다고 피력한다.⁴⁸

특히 복음전도와 관련해 배춘섭은 그의 논문, “로잔운동의 우선주의와 총체주의 간 선교신학적 논의”에서 선교의 목적이 복음전도임을 최우선으로 주장하는 우선주의(Prioritism)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 대위임령의 전제로서 사회적 관심과 복음전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총체적 선교(wholistic mission) 간의 신학적 논의를 진중히 논의한다.⁴⁹ 그는 교회의 선교에 있어 복음전도를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이유로서 “영혼구원을 가장 우선했던 예수님의 사역”(요 6장), “사회정의보다 복음전도에 가장 의미를 주었던 바울의 선교사역”(행 11:26), 그리고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사역의 실천”(행 16:16-18)과 같은 성경의 사례를 예로 든다.⁵⁰ 하지만 그는 “우선순위로서 복음전도는 선교의 다른 차원 즉 사회적, 책임이 복음전도를 위한 부차적 사역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은 아니다. 오히려 우선주의는 총체주의가 사회적 책임을 복음전도와 동등한 권위를 두어 양자의 관계를 불분명케 하고 복음전도의 긴박성과 중대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우려한다”⁵¹라고 언급하면서, 교회의 복음전도 사역이 폄훼되거나 인간의 사역 활동과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아야 함을 적극 호소한다. 이것은 복음전도의 우선주의가 결코 총체적 선교사역(wholistic missions)을 등한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환언하면,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정의되기에 복음전도를 위한 총체적 사역들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서로 상충(相沖)되는 바가 아님을 그는 주장한 것이다 (눅 19:10; 요5:30; 고전 9:19-22).

47 하도균, “다문화 사회 속에서 효율적인 다문화 교회 정착과 복음전도를 위한 연구,” 「신학과 실천」 52권 (2016): 694.

48 하도균, “다문화 사회 속에서 효율적인 다문화 교회 정착과 복음전도를 위한 연구,” 693-94.

49 배춘섭, “로잔운동의 우선주의와 총체주의 간 선교신학적 논의,” 「한국개혁신학」 76권 (2022): 181-90.

50 배춘섭, “로잔운동의 우선주의와 총체주의 간 선교신학적 논의,” 183; C.R. Little, “What Makes Mission Christian,”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logy* 25(2) (2008): 207-17.

51 배춘섭, “로잔운동의 우선주의와 총체주의 간 선교신학적 논의,” 192.

2.2. 환대와 총체적 사역

교회는 이주민이 겪는 현실적 문제를 살피고 구약시대 게르를 대하듯 복음전도와 함께 총체적인 사역들을 감당해야 한다. 먼저 교회는 이주민을 전도대상자로 인식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닌 공동체 일원으로서 수용하기 위해 그들을 환대해야 한다. 구약성경의 게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보호받는 공동체의 동반자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함께 한다(출 22:20; 23:9; 신 10:19). 게르의 정체성을 지닌 이스라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을 받았다(레 19:34; 신 23:8; 26:5; 사52:4; 시 105:23; 대상 16:19). 특히 게르는 고아와 과부처럼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다(출 22:20; 신 10:18; 14:29; 16:11; 24:17-21; 26:13; 27:19; 렘 7:6; 22:3; 겔 22:7; 말 3:5).⁵²

이런 이주민을 향한 인애(仁愛)와 환대는 율법에 나타난 두 가지 동기를 통해 입증된다. 첫째는 게르의 정체성을 지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환대)를 덧입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게르로서 애굽에서 겪었던 소외와 불의를 잊지 않고, 실제 역사적 기억을 갖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겪었던 사회적, 인종적, 경제적, 정치적인 억압을 기억하고,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억압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성실하심이 인종에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나그네인 게르도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신다(신 10:12-22).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성실하셔서, 게르에게도 음식과 의복까지 제공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아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주의 자비와 관대함을 따라 이방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⁵³

또한 교회는 총체적 사역들을 통해 이주민 선교를 해야 한다. 사실 이주자들이 타문화권에서 겪는 현실적 고충들을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전석재는 그의 논문 “한국교회 다문화 목회와 이주민 선교”에서 국내 이주민이 겪는 고충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그것은 ① 경제적 빈곤, ② 다문화가정이 겪는 문제, ③ 자기 정체성의 혼란, ④ 현지 한국인들과의 마찰, ⑤ 불법 체류로 인한 문제 등이다.⁵⁴ 이렇게 국내 이주민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교회가 복음전도와 함께 총체적 사역들을 동반해야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교회는 국제 이주자들을 위해 목회와 사회적 안정을 위한 돌봄을 제

52 Kellermann, “רג” TDOT II, 449.

53 M.D. Carroll, “Biblical Perspectives on Migration and Mission: Contributions from the Old Testament,” *Mission Studies* 30 (2013): 21.

54 전석재, “한국교회 다문화 목회와 이주민 선교,” 『활천』 835권 (2023): 30-31.

공함과 동시에, 가능하다면 복음전도를 위해 노동법률 상담이나 질병에 대한 의료기술 그리고 여타의 도움 등을 사회제도 안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주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피난처가 되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속하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⁵⁵

2.3.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역

교회는 국제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인과 이주민 간에 소통과 존중을 기반으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역을 실천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은 내외국인들은 소위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나 여러 편파적이고 우월적인 사고에 사로잡힐 위험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회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양한 이주민들과 내국인 사이에서 서로 간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⁵⁶ 이를 통해 교회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국제 이주민에게도 사회적 통합을 위해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하고, 상호존중의 문화를 유지하여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문화의 이해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지녀야 한다. 상호존중의 문화적 이해와 소통은 궁극적으로 이주민의 마음을 열어 복음전도의 기회를 열어주고, 평화로운 사회적 통합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의 이해는 아시아인을 향한 선교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이다. 예컨대, 아시아인의 미덕은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를 종교적 미덕으로까지 여기며 중요하게 생각한다. 불교의 전통에서는 “보시”(Dāna: 관대함/환대)⁵⁷를 중시하여 모든 불교도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덕목으로 가르친다. 심지어 보시가 없이는 누구도 득도(得道)할 수가 없다. 이슬람에서도 보면,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방인

55 비슷하게, 히르슈만(Hirschman)은 이주민을 위한 교회의 사역이 ‘피난처’(Refuge), ‘존경’(Respect) 그리고 ‘자원’(Resource)이라는 복음전도를 위한 총체적 사역으로서 ‘3R’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C. Hirschman, “The Role of Religion in the Origins and Adaptation of Immigrant Group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2004): 1228.

56 허준, “다문화사회 이주민에 대한 전도방안 연구,” 『선교신학』 58권 (2020): 395.

57 보시(布施)는 자비심으로써 다른 이에게 조건 없이 물건을 주는 것, 즉 ‘봉사활동’을 말한다. 《대지도론》 제11권에 따르면, 보시를 행하면 6근(六根)이 청정해지고 유익한 마음[善欲心]이 생겨난다. 그리고 공덕의 과보를 만나게 된다.[3][4] 6근이 청정해지는 것은 12연기에 의하면 비리작의를 제거하는 환멸연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유익한 마음은 공덕 즉 善業을 쌓는 작용을 하고 쌓인 공덕은 좋은 과보를 만나게 한다. 또한 《대지도론》에 따르면, 보시를 할 때 ‘근접 8정도’[相似八正道]와 ‘근접 37도품’[相似三十七品]이 마음 속에 생겨난다. 근접 8정도란 《잡아함경》 제28권 제785경 〈광설팔성도경〉 등에 의하면 정견 등 8정도는 좋은 세계로 향하게 하는 것과 출세간으로 향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의 좋은 세계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 “Dāna,” <https://en.wikipedia.org/wiki/D%e4%81na> (2023년 8월 10일 접속).

에 대한 환대를 매우 진지하게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꾸란 4:36-37). 페르니아(A.M. Pernia)는 아시아인을 위한 세 가지 선교전략으로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비수직적 차원의 겸손한 사역. 둘째, 행위보다는 인격적 존중을 통한 존재론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사역. 끝으로 개인 소유적이 아닌 공동체적 신앙의 나눔을 통한 문화 적응이다.⁵⁸ 이처럼 아시아권에서는 역사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환대와 사람들 간의 존중을 전통적으로 고수하여 사회적 통합을 끌어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이주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인격적 존중과 예우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다문화 사회에서 교회가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선교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문화에 대한 상호적 이해이다. 다른 가치관과 문화를 지닌 사람들 사이에 상호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문화가 정적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상호적 인류의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는 얼마든지 이질적 요소의 유입으로 인해 한 문화가 유동적으로 패러다임이 가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⁵⁹ 둘째,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양한 문화의 개성과 독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지 주류문화에 소수 이주민의 문화를 강제적으로 편입시키는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의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⁶⁰ 이는 자칫 인종차별이나 소수 인종에 대한 혐오로까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다양성 내 통합’(unity within diversity)을 추구하는 사회적 통합을 목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각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없애고 혼합시키는 멜팅 팻(melting pot)⁶¹보다는 각 이주민의 독특한 문화를 존중하여 공존하는 샐러드 볼(salad bowl)⁶²의 다문화 이론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기독교 정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세속문화의 위험을 경계하고 복음을 통한 문화변혁에 앞장서는 것이다. 샐러드 볼의 다문화 이론 역시도 각 소수 이주민의 숨겨진 비기독교적 세계관이나 그들의 전통 종교의 신앙이 숨겨진 상태로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의 가르침 대로 교회는 비판적 다문화주의(critical multi-culturalism)를 통해 인종적 갈등이나 종교혼합주의 내

58 A.M. Pernia, "Theology whose heart is mission," *Landas* 30(1) (2016): 100-102.

59 특별히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문화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을 논문을 참고하라. 배춘섭, "문화개념에 관한 신약성경의 어원적 접근," 「성경과 신학」 92 (2020): 25-60.

60 "문화 동화," <https://ko.wikipedia.org/wiki/문화동화> (2023년 8월 26일 접속).

61 "인종의 용광로," <https://ko.wikipedia.org/wiki/인종의용광로> (2023년 8월 26일 접속).

62 샐러드 볼(salad bowl) 이론은 20세기 후반 세계화가 촉진될 때 모든 다양한 문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문화로 창출자는 멜팅 팻(melting pot) 이론의 약점을 보완하여 등장했다. 이 이론은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각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로운 사회적 통합을 영위하자는 것이다. 이 이론의 특징은 멜팅 팻과는 달리 서로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 즉 각 문화를 존중하며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 대표적 예로서, 미국의 뉴욕(New York)과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이다. 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주자들이 각자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공존하여 삶을 살아간다. 이후 샐러드 볼의 이론은 캐나다에서 문화 모자이크 이론으로 더욱 세심하게 구체화되었다; B. Kalman, *Canada: The Culture* (New York: Crabtree Publishing, 2010), 4.

지는 세속주의 등의 위협을 숨겨진 문화적 압력을 불식시켜야 한다.⁶³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주민을 전도하여 아시아와 세계선교를 위한 역선교(reverse mission)의 주역들로 세워 재파송 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그들이 소외 받는 이주민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전도자로서 선교의 주체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민을 통한 교회의 이런 역선교는 궁극적으로 선교의 주역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은혜와 구원을 널리 가져다줄 것이다.⁶⁴

V.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에서의 이주 정세와 그 요인을 분석하고, 이주민을 위한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 성경적 관점에서 이주에 관해 논의했다. 오늘날 아시아에서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수치는 약 6,900만 명에 달한다. 아시아 내에서의 이주는 비아시아 지역권에서의 이주 형태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로서, 아시아가 이주의 시대를 맞이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급격한 이주에는 자연재해나 분쟁으로 인한 피난, 윤택한 삶을 위한 지리적 이동,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 단위의 정책, 그리고 첨단 과학 문명의 혁신적 기술에 의한 도움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구약성경에서 이주민으로 번역 가능한 용어들 중에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해 선교적 관점에서 게르(גֵּר)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언약관계 속에서 중요한 신학적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게르는 원주민과 이방인 중간 정도에 위치한 신분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에 의해 보호받는 존재로서 야훼를 믿는 신앙공동체 안으로 수용된 자들이었다. 이런 게르의 특징은 향후 비유대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는 이방인 구원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 신약성경

63 비숫하게 폴 히버트(P. Hiebert)는 비판적 상황화(critical contextualization)을 주장하여, 복음과 문화 간의 이해는 성경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 이론도 히버트의 주장처럼 비판적 다문화주의(critical multiculturalism)를 통한 성경신학적 이해와 적요이 필요하다. 참조) P.G. Hiebert, "Critical Contextualization,"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XIII (1984): 290.

64 역선교는 탈식민지 시대에 서구 세력에 반대한 아프리카 토착민들의 불만에서 비롯된 아프리카 오순절교회에서 출발한 선교였다. 특별히 이주민들에 의한 역선교의 연구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J. Hanciles, *Beyond Christendom: Globalization, African mig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est* (Maryknoll, NY: Orbis Books, 2008), 325; A.F. Walls, *The cross-cultural process in Christian history* (Maryknoll, NY: Orbis Books, 2002), 30-32.

은 게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προσήλυτος, πάροικος, γειώρας를 번역해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 ‘개종자’, ‘이방인’, ‘나그네’이다. 다시 말해,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교회가 이주자로서 중 말론적 신앙을 지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명시한 것이다(빌 3:20; 히 11:13; 벧전 1:1; 2:11).

이런 신학적 배경 안에서, 로잔대회는 2004년 태국 파타야에서 디아스포라 유학생에 관한 논의를 진중하게 진행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이주의 시대였고 성경은 일련의 이주 내러티브로 되어 있으며, 20세기 이후 대규모의 이주시대를 맞이했다는 점을 논의했다. 이후 로잔위원회는 2009년 회의를 거쳐 3차 대회인 케이프타운 세계복음화 로잔대회에서 이주 신학과 선교현장에 관한 더욱 발전된 논의를 거듭했다. 이것은 이주의 의제와 이주민을 향한 복음전도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임을 의미한다. 이 같은 신학적 논의를 기저로, 교회가 선교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적 관점에서 이주민들을 위한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둘째, 교회는 이주민을 환대하며 복음전도의 결실을 위해 총체적이면서도 실제 필요한 사역들을 동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주민들 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역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문화의 심층적 이해를 지니고 복음전도를 통한 문화변혁을 추구하며, 사람들 간의 안정된 통합을 통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목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의지하여 이주민 선교를 실천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선교의 주체인 복음증거자로서 세움을 받아 역선교를 위해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각 민족에게로 재파송 받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광석. “다문화 선교를 위한 ‘이주민’의 성경적 이해와 선교적 적용.” 『개혁논총』 47권 (2018): 97-135.

노충현. 「무관심 속 꾸준한 협력사역... 총회외국인선교협의회 3년」. 기독교신문. 1999. 12. 22.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51> (2023년 8월 25일 접속).

노형구. 「GMS 이주민 선교포럼」. 기독교일보. 2023. 4. 27.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24648#share> (2023년 8월 25일 접속).

배춘섭. “로잔운동의 우선주의와 총체주의 간 선교신학적 논의.” 『한국개혁신학』 76권 (2022): 171-205.

배춘섭. “로잔운동의 우선주의와 총체주의 간 선교신학적 논의.” 『한국개혁신학』 76권 (2022): 171-205.

배춘섭. “문화개념에 관한 신약성경의 어원적 접근.” 『성경과 신학』 92 (2020): 25-60.

이은선. “6.25 전쟁과 WCC와 한국교회.” 『한국개혁신학』 58권 (2018): 213-53.

이은선. “제11차 WCC 총회 주제 분석과 개혁주의 시각에서의 평가.” 『한국개혁신학』 77권 (2023): 98-137.

이지희. 「2030년까지 200개국 2,000명 목회자·자비량 이주민 사역자 파송」. 선교신문. 2020. 2. 5. <https://missionnews.co.kr/news/581829#:~:text=GMS> (2023년 8월 25일 접속).

전석재. “한국교회 다문화 목회와 이주민 선교.” 『활천』 835권 (2023): 28-33.

하경택.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 <노크리>와 <게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39권 (2010): 61-88.

하도균. “다문화 사회 속에서 효율적인 다문화 교회 정착과 복음전도를 위한 연구.” 『신학과 실천』 52권 (2016): 681-710.

허 준. “다문화사회 이주민에 대한 전도방안 연구.” 『선교신학』 58권 (2020): 375-411.

“2010 The Cape Town Commitment,” <https://lausanne.org/content/ctc/ctcommitment> (2023년 8월 24일 접속).

“Dāna,” <https://en.wikipedia.org/wiki/D%C4%81na> (2023년 8월 10일 접속).

“Message from the Executive Director,” <https://www.unep.org/annualreport/2022/> (2023년 8월 30일 접속).

“문화 동화,” <https://ko.wikipedia.org/wiki/문화동화> (2023년 8월 26일 접속).

“이주민 디지털 격차, 소득·계층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989> (2023년 8월 16일 접속).

“인종의 용광로,” <https://ko.wikipedia.org/wiki/인종의용광로> (2023년 8월 26일 접속).

Arnold, B.T. *Genesis: The New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Press, 2009.

Averbeck, R.E. “A Literary Day, Inter-Textual, and Contextual Reading of Genesis 1-2.” In *Reading Genesis 1-2: An Evangelical Conversation*, edited by J.D. Charles (Peabody: Hendrickson, 1982): 7-34.

Awabdy, M.A. “He Loves the Immigrant: Deuteronomy’s Theological and Social Vision for the II.” Ph.D. diss, Asbury Theological Seminary, 2012.

Brown, R.E. *The Birth of the Messiah: A Commentary on the Infancy Narratives in the Gospels of Matthew and Luke*.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99.

Carroll, M.D. “Biblical Perspectives on Migration and Mission: Contributions from the Old Testament.” *Mission Studies* 30 (2013): 9-26.

Carroll, M.D. *Christians at the Border: Immigration the Church, and the Bible*. Grand Rapids, MI: Baker, 2008.

Carson, D.A. *Expositor’s Bible Commentary: Matthew*. Grand Rapid: Zandervan, 2010.

Dryden, J.D.W. *Theology and Ethics in 1 Peter: Paraenetic Strategies for Christian Character Formation*. Tübingen: Mohr Siebeck, 2006.

Elliott, J.H. *1 Peter: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Ellis, E.E. *New Century Bible: The Gospel of Luke*. Grand Rapid: Eerdmans, 1974.

Grundmann, W. “παρεπίδημος.” *TDNT*, II (1964): 64-65.

Hanciles, J.J. *Beyond Christendom: Globalization, African mig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est*. Maryknoll, NY: Orbis Books, 2008.

Hiebert, P.G. “Critical Contextualization.”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XIII (1984): 287-96.

Hirschman, C. “The Role of Religion in the Origins and Adaptation of Immigrant Group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2004): 1206-1233.

Houston, Tom. Thomson, R. Gidoomal, R., & Chinn, L. “The New People Next Door.” In *Lausanne Occasional Papers(LOP) no. 55: A New Vision, a New Heart, a Renewed Call*, edited by D. Claydon.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5): 75-131.

Kalman, B. *Canada: The Culture*. New York: Crabtree Publishing, 2010.

Kellermann, D. “רִג”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II*. (Grand Rapids: W.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439-49.

Keown, M.J. *Evangelical Exegetical Commentary: Philippians 2:19-4:23*. Bellingham: Lexham Press, 2017.

Köstenberger, A.J. *A Theology of John's Gospel and Letters*. 전광규 역. 『요한신학』.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5.

Lane, W.L. *Word Biblical Commentary: Hebrews 9-13*. Grand Rapid: Zandervan, 1991.

Little, C.R. “What Makes Mission Christian.”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logy* 25(2) (2008): 207-17.

Massey, D.S., J. Arango, G. Hugo, A. Kouaouci, A. Pellegrino & J.E. Taylor, *Worlds in Mot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e End of the Millennium*.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5.

McAuliffe, M., & A. Triandafyllidou (eds.). *World Migration Report 2022*.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22.

Medeiros, E. "God scatters to gather through his people: A missional response to migrant churches." In *Reformed means missional* edited by S.T. Logan (NC, Greensboro: Green Growth Press, 2013): 173-188.

Michaels, J.R. *Word Biblical Commentary: 1 Peter*, 박문재 역. 『WBC 베드로전서』,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6.

Miller, P.D. "Israel as Host to Strangers." In *Israelite Religion and Biblical Theology*. Edited by P.D. Mille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548-71.

Nguyen, van T. "Asia in motion: A biblical reflection on migration." *Asian Christian Review* 4(2) (2010): 18-31.

Nolland, J.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 W.B. Eerdmans, 2005.

Osborne, G.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Matthew*. 김석근 역. 『강해로 푸는 마태복음』,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15.

Payne, J.D. *Strangers Next Door: Immigration, Migration, and Mission*. Downers Grove, IL: IVP, 2012.

Permia, A.M. "Theology whose heart is mission." *Landas* 30(1) (2016): 97-102.

Schmidt, K.L., Schmidt, M.A., & Meyer, R. "παροικος." *TDNT*, V (1978): 841-53.

Silva, Moisés. *Philippians*. 최갑중 역. 『BECNT 빌립보서』,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20.

Tira, S. *Scattered to Gather: Embracing the Global Trends of Diaspora*. Manila: Lifechange Publishing Inc., 2010.

van Houten, C. *The Alien in Israelite Law*. 이영미 역.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구약법에 나타난 이방인』,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8.

van Thanh Nguyen, SVD. "Asia in Motion: A Biblical Reflection on Migration." *Asian Christian Review* 4(2) (2010): 18-31.

van Wijk-Bos, J.W.H. *Making Wise the Simple: The Torah in Christian Faith and Practice*.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5.

Walls, A.F. *The cross-cultural process in Christian history*. Maryknoll, NY: Orbis Books, 2002.

WDR(World Development Report), *Migrants, Refugees, Societies*. Washington: The World Bank, 2023.

Wright, C.J.H.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6.

Wright, C.J.H.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6.

<Abstract>

A Biblical Examination of Migration for the Asian Mission and It's Application

Bae, Choon-Sup

Chongshin University, Assistant Prof. in Missiology

This thesis discusses a biblical examination of migration and the church's holistic missionary outreach to evangelize the rapidly growing migrant population in Asia. Today, the number of people migrating from one part of Asia to another is increasing every day. There are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reasons for this rapid migration, which has been accelerated by the recent revolutionary scientific civilization. When studying migrants, in particular, the Ger(גר) has a very special meaning in the Old Testament, who is a Gentile but has faith in Yahweh to be accepted into Israel. In the New Testament, Ger is translated as proselytes(προσήλυτος), strangers(πάροικος), and sojourners(γειώρας), which means that they are Christians with eschatological faith who are looked after under God's grace and are hoping for the kingdom of God. Therefore, the church should have the following missionary posture towards migrants from God's redemptive perspective. First, the church should recognize its identity as a migrant temporarily residing on the earth and endeavor to evangelize. Second, the church should welcome migrants with God's love and undertake holistic outreaches. Finally, the church has to practice the ministry for social integration between migrants and natives. Ultimately, the author proposes to consider the migrants as a subject rather than an object of mission through migrant missions. In doing so, he argues that migrants, as witnesses to the gospel, should be engaged in reverse missions to evangelize the world including the Asia.

| Key words | Asia, Mission, Migration, Bible, Evangelism.





선교신학 논평

“아시아 선교를 위한 이주의 성경적 고찰과 적용”에 관한 논평



박진호 Jin-Ho Park

총신대학교 Chongshin University

lovenamibia@gmail.com

<요약>

이주의 문제는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본다. 논평자는 개인적으로 최초의 이주민은 아담과 하와였다고 생각한다. 차치하고 배춘섭은 이 논문을 통해 아시아권 중심의 이주에 관련된 선교의 성경적 고찰과 교회의 총체적 선교사역, 그리고 이주민이 선교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삼을 것을 제안하며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1. 서론

저자는 2010년 로잔 3차 케이프타운 대회 서약문(CTC IIC:5)에서 언급한 것처럼, 출생지로 부터 이주한 “디아스포라”와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사역”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주자들을 위한 선교적 목적을 위해 떼려야 뗄 수 없는 선교적 관계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2. 개요: 아시아의 이주 정세와 요인: 정치 경제 지리적 영향

- 2020년 아시아 현재 약 46억의 인구가 살고 있음.
- 국제 이민자는 2억 8천 백만(약 1억 1,500만)으로, 이민자의 40% 아시안, 절반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살고 있음.
- 시리아 아랍 공화국의 피해국가들은 주로 터키(튀르키예), 요르단,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그리고 그 외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2023년 9월 1일 현재 민간인 사상자 약 9,177명의 사상자, 러시아는 약 25천명)

※ 지난 30년 동안의 아시아 내 지리적 인구이동 증가 수치 상승 요인들

- 1) 자연재해와 전쟁, 분쟁지역 내 박해 등 사회 정치적 요인
- 2) 긍정적 발전기회로써 윤택한 삶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 3) 글로벌 경쟁력 위해 이주노동자 수용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국가 정책요인
(고령화사회의 결과적 영향)
- 4) 노동력 비율 유지를 위해 국내 노동자 연령 7년 연장해야 노동력 비율 유지

※ 4차 산업혁명의 결과

- 1)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첨단 과학문명의 혁신적 디지털 기술 발전: 시스템 변화 가져옴.
- 2) AI, 교통수단의 발달, 디지털 기술 발달로 밀수 인신매매 등 정보 확보 원활
- 3) 온라인 챗봇 통해 이주민 정책 및 이민법 간편 탐색 및 숙지 가능
- 4) 블록체인, 디지털은행 통한 국제송금 등 지리적 이동에 대한 어려움 극복 원활

※ 이주민 증가

- 1) 전 세계 이주민 증가 수치 아시아 내에서 가장 높음.
- 2) 이주민 이동 더욱 활성화 기대 - 고소득 국가의 노동력 부족은 저소득 국가의 이주 노동자 수요 필요
- 3) 고령화로 인한 국제간 이주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 전망
- 4) 데니스 김(Denis Kim): 2018년 한국 0.98의 낮은 출산율로 인해 수 십년 후 노동력 부족 사태 경험 가능
- 5) 한국 고소득 경제 유지 위해 저소득 국가의 이주노동자 수요 필요 적극 수용하게 됨.
- 6) 이런 상황은 가난과 연결된 동남아의 저소득 국가나 빈곤 국가로부터 이주노동자 적극 수용 인정해야 함.

결론적으로 이주민 선교와 관련 난민과 망명신청자, 이주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선교는 시대가 요청하는 교회의 사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성경에 나타난 이주민

1) 구약성경에서의 이주민

구약성경에서 이주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 4가지: 게르, 자르, 노크리, 토샤브
이 중 게르는 야훼와의 언약과 관련된 선교적 사회적 범주에 해당

하경택의 노크리와 게르에 대한 이해 세 가지

①제도적 차원 - 노크리: 이스라엘에 정착 의도 없음. 단기적 거주

게르: 영구적 이스라엘에 정착 목적으로 거주하는 이방인

②종교적 차원 - 노크리: 야훼종교로 개종 원치 않음.

게르: 야훼신앙으로 개종/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되기 원함.

③사회적 차원 - 노크리: 법적 사회적 보호대상 아님.

게르: 사회적 약자로서 율법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음.

패트릭 밀러 Patrick Miller

- 구약성경에서 게르, 자르, 노크리의 의미는 “낯선사람, 외부인 또는 외국인을 언급하는 기본 어휘”
 - 하지만 게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보호대상, ‘자르’와 ‘노크리’ 는 보호 못 받는 이방인.
 - 자르와 노크리 = 상업활동이 가능한 자들(적대감 받음). 그래서 자르 = 이스라엘 공동체 수용된 사례 없음.
 - 그런 면에서 “이주민”의 현대적 의미는 노크리에 더 근접하다고 이해된다.
 - 선교적 측면에서는 “게르” 이해가 중요: 거주자, 체류자, 나그네로 번역 가능
 - 모세율법은 게르의 신변보호와 언약백성의 의미 지님. 하나님의 언약관계로 차별 없이 수용됨.
 - 게림에게는 유리한 많은 법전들이 있다.
- ① 단순히 노예, 포로, 이방인 등과 같은 부류들과 구별된 자들이다.
 - ② 율법이 말하는 게르는 언약적 특성으로 종교적 특권을 가지고 있다.
 - ③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인도주의적 관심과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 ④ 야웨를 믿는 신앙으로 개종,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이방인을 의미한다.
 - ⑤ 게림(게르복수형)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 정기적 히브리어 율법낭독, 성적 금기 피함(레18:26), 정결법(민19:10), 음식제한(출12:19; 레17:10-15), 가장 중요한 법은 레20장, 민15:30-31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여호와 모독 금지(레20장; 민15:30-31)
 - 게림이 언약백성 정체성 이탈 시 이스라엘 공동체 교류 단절
 - ⑥ 게림에게 주는 특혜
 - 수확기에 이삭줍기(신24:19), 3년마다 십일조 일부를 허용(신14:28-29; 26:12-13), 안식일 휴식, 속죄일,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등의 절기 참여 허락
 - 모세율법은 이주민인 게림을 지원하고 돌봄, 사회 종교적 제도적 차원에서 보호, 사법적 문제와 인식일에 안식, 종교적 절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종교적 제도적 차원에서 보호
 - ⑦ 게르: 이스라엘 조상에게 개념적용, 창세기 아브라함 야곱 열두 아들들, 롯과 모두 게르로 표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게르임을 뜻하며 곧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이주민의 삶을 살
아야 하는 것 함의를 담고 있다.

2) 신약성경에서의 이주민

구약의 게르의 신약적 관점의 신학적 의미

신약의 “프로셀뤼토스”를 제외한 구약의 ‘게르’나 ‘게림’의 개념의 단어는 낯선자, 거주자, 체류자나 “나그네”로 번역이 되는 “파로이코스”이다. 누가와 마태는 “이주민 예수”를 전했다.

마태가 말하는 이주민 예수님의 정체성

- 첫째, 예수는 다말, 라합, 롯과 같은 이주민으로서 외국인 여성을 수반하는 족보에 등장
- 둘째, 북쪽 나사렛으로 이주한 예수를 마태는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애굽에서 이주민의 삶을 사셨고 실향민으로서 난민이자 이방인이며 방랑자나 떠돌이 이주민으로 묘사함(호세아11:1)
- 주님은 파로이코스(나그네)이셨다고 증거한다. 하지만 마태는 결국 예수님은 방랑자, 이방인, 혹은 방랑자로 여겼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다. 끊임없는 이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로서 죽음을 맞는다. 그리고 낯선 사람의 무덤에 묻히신다.

요한복음의 예수님

- 주변인과 사회적 약자를 찾아오시는 이주민 예수
- 끊임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이방인이자 방랑자 이주민, 하지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로고스이며, 신성한 말씀이고, 요1:14 에서 보듯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시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이땅에 찾아오셨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허무시고 오셨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자를 의미하는 “폴리투마”를 언급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정체성 인식시키려 함.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정체성 인식하고 영생의 특권과 종말론적 소망을 가질 것을 권고하며, 또한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당부하고 있다. 빌립보서는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우주론적 사회적 주제를 이주민과 연결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방인으로서의 교회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주민의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다.

히브리서는 거주 외국인 ‘파레피테모스’로서 이스라엘 족장들의 경험한 바를 증거한다. 히 11장 16

절에서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서 법적 게르로 불렸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종말론적 신앙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회적, 정치적, 법적 이방인 같은 게르임을 소개하고, 또한 구약시대 포로기의 유배 등의 경험을 통해 종말론적이며 우주론적 삶과 신앙을 형성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다독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배춘섭은 베드로전서 2:11절에서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세상 속의 “파로이코우스카이 파레피데모스”, 즉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리고 있으며,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포로가 되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램지 마이클스는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 (Inclusio, 또는 Ring composition) 수미쌍관법의 문학형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택한백성”인 교회가 바로 나그네임을 베드로가 수사학적으로 논증했다고 해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배춘섭은 이상과 같은 논의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주민을 모세율법 정신에 따라 대하고, 동시에 스스로를 아웨와의 언약과 관련하여 신학적 선교적 범주에 해당하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에 수용되어 함께 아웨신앙을 지닌 ‘게르’Ger, ‘파로이 코스’, ‘파레피데모스’(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주민으로서의 스스로를 인식하도록 이끈다고 이해하였다.

4. 로잔대회와 교회의 선교사역 적용

1) 로잔대회에서의 이주(Migration)

2004년 태국 파타야에서 세계복음화 로잔위원회는 세계 복음화 상황과 장애요소, 및 새로운 아이디어와 미전도종족 접근 위한 선교 전략 탐구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디아스포라 유학생: 옆집에 사는 새로운 사람들”Diasporas and International Student: The New People Next Door”라는 아티클이 소그룹을 통해 작성되었다. 여기에서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사람들이 타국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착현상을 논의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인류역사 이주민으로 가득찬 시대

- ②신구약성경의 이주민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들
- ③20세기부터 현재까지 전례없는 대규모 이주 발생 등 이었다.

2009년 이주민선교사역 정의 도출시도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로잔대회 개최

주된 의제: “이주민선교” 이었다. 이주민 부서 사디리 티라(Sadiri Tira)는 “Scattered to Gather: Embracing the Global Trends of Diaspora” 라는 소논문 작성. 내용은 이주민에 대한 정의, 디아스포라 선교유형 및 세부사항 구체화 등 이었으며, 거기서 이주민 선교방법론 필요성을 논의하였고, 이주민 선교에 관한 세부 논의는 진보를 보였다. 특히 페인의 “이웃으로서의 이방인들”은 세계의 이주민 패턴을 통해 세계인구지수가 이주로 인해 빠른속도로 움직이고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세기 동안 유학생과 난민에 관한 이주패턴을 조사하였으며, 인구이동과 복음전파로 인한 세계 및 기독교의 변화와 유럽의 기독교 부흥의 원동력이 될 것을 언급하였다.

2)교회의 선교적 사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은 1997년 9월 23-26일 제82회 총회에서 “총회국내 외국인 선교협의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2019년 5월 30일 다민족사역연합체 KMMC KOREA: multi-ethnic Ministry Community를 구성하였다.

2.1. 복음전도사역

발제자는 구약의 게르와 신약의 파로이코스과 파레피데모스가 거류민과 나그네를 이해하고 이주민 선교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도균은 교회가 다문화 구성원들의 동질감과 신앙,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거기에는 교육적 인도적 신앙교제와 선교적 차원 복음전도, 교회의 역할, 돌봄과 환대 등의 실천이 따라야 함을 언급했다.

2.2 환대와 총체적 사역

발제자는 이주민을 환대하고 신앙의 동반자로서, 복음전도와 함께 환대해야 함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 이유는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과 게르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환대와 접근 그리고 관대함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주민들이 겪는 고충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석재는 다섯 가지 이주민의 고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경제적 빈곤 2)다문화 가정의 문제 3)자기 정체성의 혼란 4) 현지 한국인들과 마찰 5)불법체류

경계해야 할 것: 필자는 복음전도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저들을 도와주며 헌신적으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는 어쩌면 오히려 의존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처음에는 고마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후에는 오히려 저들이 먼저 요구를 해 올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발단은 “요구”의 시작으로부터임을 기억해야 한다.

2.3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역

통합을 위해 교회는 이주민과 상호 간의 문화 이해와 소통 및 존중의 실천이 필요하다. 자문화 중심 우월주의 등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문화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은 저들이 자국 내에서 가졌던 저들의 종교들이다. 종교가 언급되면 사회적 통합이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종교적 측면에서의 갈등은 신앙의 내면에서 상호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 기대하는 사회적 통합은 종교로 인해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인격적 존중과 예우를 갖춰야 할 것이다.

발제자는 다문화 사회에서 교회가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의 선교적 접근을 요구한다. 1)문화에 대한 상호이해, 2)사회적 통합 위한 다양한 문화의 개성과 독특성 인정, 3)기독교 정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세속문화의 위험을 경계하고 복음 통한 문화변혁에 앞장선다. 또한 비판적 다문화주의가 요구되며 숨겨진 문화적 압력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교회는 저들을 전도하기 원하지만 타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저들의 치열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한 저들의 싸움에 관한 속내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국의 삶 속에서 웃고 있지만 허한 마음을 가진 이주민들을 전도하여 세계선교를 위한 역선교의 주역들로 재파송해야 하는 거룩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한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궁금한 것은 “저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저들이 가졌던 신앙이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있을 것인가?”이다.

논평

인구절벽으로 알려진 대한민국에서 이주민의 수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력이 필요한 산업현장에서의 불어나는 이주민들의 역할은 한국 경제를 살려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제자는 초록에서 밝히듯 아시아에 급증하는 이주민과 이주민 복음전도에 관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성경적 고찰을 통해 읽는이로 하여금 이주민 선교에 관한 다양한 많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발제자가 정한 주제어는 아시아, 선교, 이주, 성경, 복음전도 이다. 발제자는 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성경에 언급된 “게르”, 자르, 노크리, 토샤브 등의 성경에 입각한 단어연구를 통해 이주에 관한 성경적 고찰과 연관된 주제들과 더불어 한국교회가 이주민과 더불어 나아가야 할 선교적 사명과 사역들을 심도 있게 논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주민들에 관한 삶의 정황과 이주민들을 향한 교회적 측면, 그리고 크리스천의 이주민들을 향한 복음전도적 측면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깊이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논문을 읽는 이들은 이주자들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저들을 향한 크리스천들의 사명과 교회의 글로벌 선교의 역할들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심사숙고와 더불어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를 위한 도전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분명히 주어지리라 확신한다.

아시아교회를 위한 정책,
개혁신학이 답하다.